



황강, 연변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여

길림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 돈화오동공업원에서 림하삼 제품의 연구개발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있는 성당위 서기 황강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당위 서기 황강은 연변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동북의 전면 진흥과 길림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지시 정신을 과학적 인도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락착하여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길림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돈화현총령홍색교육기지는 일찍 동북항일련군의 중요한 근거지였다. 황강은 밀영 유적을 답사하며 진한장 등 동북항일련군 장병들이 적들과 싸운 전투 역사를 상세하게 료해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 존망의 관건적인 시각에 동북항일련군 장병들은 생사를 돌보지 않고 선뜻 나서서 간고한 조건에서 적들과 유격전을 펼쳤고 확고한 신념과 완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바 이는 우리들이 우러러보고 따라배워야 할 바이

다. 동북항일련군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동북항일련군 이야기를 잘 들려주며 항일련군 장병들의 철강이 강직하고 기개가 비범한 영웅적 형상을 잘 보여줌으로써 애국주의의 주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파고들게 하고 련마하고 전진하며 분투를 이어가는 강대한 정신력을 한층 더 결집시켜야 한다. 룡정산고분군은 당나라 발해국 전단지 왕실이며 귀족 묘지이다. 황강은 력사문화유적의 보호 리용을 강화하고 관련 력사자료를 깊이 발굴하며 풍부한 문화 내포로 관광 발전에 령혼을 주입하고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더욱 잘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룡정시 삼합진 남호제방공사 현장에서 황강은 홍수로 파괴된 시설의 재건 상황을 현지답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방에 대해 전반적인 보강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목과 명목(名木)을 잘 보호하여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선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 현, 시, 구 지도자들은 단호히 책임을 짊

어지고 제때에 고품질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황강은 돈화오동공업단지에 가서 생산경영 상황을 상세하게 료해했다. 기업이 인산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강은 충분히 긍정하면서 선두기업의 시범 역할을 발휘하여 더욱 많은 림하삼 고급 제품을 개발하고 산업 표준화, 규범화 발전을 이끌어 길림 장백산인삼이라는 이 '금자간판'이 닦을수록 더욱 빛나게 하기를 희망했다. 안도국약품타이드(安都) 회사는 주로 인삼 등 제품 가공에 종사하는데 황강은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길림성의 밀어붙일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상품의 좋은 질과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 난관들과 강도를 높이며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발전 장애를 한층 더 제거하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를 실현하여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내는'(劣币驱逐良币) 현상을 철저히 개선시켜야 한다.

길림켈레영약화학회사, 길림위트산업단지, 천제방(길림) 약재과학기술회사에서 황강은 신기술 응용 상황을 상세하게 료해했다. 그는 혁신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더욱 많은 정력을 과학기술혁신에 두고 '독보적인 묘기'(独门绝技)를 힘써 련마하며 핵심기술을 장악하여 시장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아시아연합기계제조회사는 현재 이미 20여개의 발명과 실용형 특허를 갖고 있는데 황강은 관련 부문에서 봉사 보장을 잘하고 기업이 우수하고 강해지도록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왕청호기식품양조회사의 생산경영 상황을 현지 고찰한 후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에서는 산업계획을 제정함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집약적이고 능률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산업 항목의 무당 평균 수익이 합리적인 구간에 처해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황강은 가택(嘉泽) 제로탄소저장배터리제조(1기)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전 경로를 깊이 연구하고 중대한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배치할 것을 당지에 요구하면서 결코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을 해서는 안되며 동질화, 내권(内卷)식 경쟁을 견결히 피하고 건강한 산업생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간부들은 발전은 반드시, 오직 고품질 발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리해하고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야 한다. 정확한 치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길림의 고품질 발전의 뚜렷한 진적을 추동해야 한다. 확고한 결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성당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11개 방면의 주요 임무와 9개 중점 전문 항목에 따라 개혁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여 착실한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전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만강의 열정으로 경영주체의 근심을 덜어주며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무원, 공평하고 광범한 법치환경, 기업이 리롭고 해묵주는 시장환경, 보장이 유력한 요소환경,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

호가북, 채동, 리위가 조사연구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함께 협력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호혜윈윈합시다'

2024 중국(장춘) 한국주행사 중한시범구서 성황리에



10월 19일 오전, 2024 중국(장춘) 한국주행사가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에 위치한 중한도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함께 협력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호혜윈윈합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한국주행사는 길림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장춘한국인(상)회가 주최했으며, 글로벌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길림성정부 외사판공실 주임 정강, 장춘시정부 당초 상원 리운봉,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 당사사업위원회 서기 류내군, 중한(장춘) 국제협력시범구관리위원회 주임 탕대봉 등 국내 인사와 심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최희덕,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 고탁희, 동북삼성한상회연합회 회장 김정렬, 장춘한국인(상)회 회장 김희훈 등 한국 인사 등 300명에 달하는 양국 인사가 참가했다.

정강 주임, 류내군과 최희덕 총영사, 김희훈 회장이 각각 중한 양국을 대표하여 축사를 했다.

정강 주임은 축사에서 "길림성은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바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자매결연을 맺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및 한중교류협회 등 상협회와 결실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성당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11개 방면의 주요 임무와 9개 중점 전문 항목에 따라 개혁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여 착실한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전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만강의 열정으로 경영주체의 근심을 덜어주며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무원, 공평하고 광범한 법치환경, 기업이 리롭고 해묵주는 시장환경, 보장이 유력한 요소환경,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

호가북, 채동, 리위가 조사연구에 참가했다.

정강 주임은 축사에서 "길림성은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바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자매결연을 맺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및 한중교류협회 등 상협회와 결실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성당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11개 방면의 주요 임무와 9개 중점 전문 항목에 따라 개혁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여 착실한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전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만강의 열정으로 경영주체의 근심을 덜어주며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무원, 공평하고 광범한 법치환경, 기업이 리롭고 해묵주는 시장환경, 보장이 유력한 요소환경,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

연변 10명 대학생 전국 서부계획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

全国西部计划考核优秀志愿者名单 (延边州)

张思静	郭景华	赵静	赵慧敏	高婷	刘新安	苏日格	白瑞东	李阳
屈丹妮	孟庆坤	刘国地	王磊	高亮	李月	李月	李月	高玉娟
李璐	康海霞	吴青海	小岩	吴伊如	丁佳月	匡志颖	匡志颖	匡志颖
宋宇晨	白云	计斯琪	韩小玲	杨然	李世杰	林宇晴	宝地艳	郑正宇
张慧蓉	李翌熙	李雅楠	郝诗颖	杨赫				

吉林(10人)
刘赫洋 崔秋宇 齐田光 戴舒贤 李嘉琪 江凯妮 吴晓 温旭明 张野 袁菲微

일전 전국대학생자원봉사서부 계획대상관리판공실에서 발부한 <2023-2024년도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평가 등급 우수자원봉사자 명단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연변의 류창양, 곽추우, 제진중, 대서정, 리가기, 강가니, 오효, 은옥명, 장야, 공학계 등 총 10명의 성원이 '전국 서부계획 평가 우수자원봉사자' 칭호를 수여받았다. 서부계획은 한가지 중요한 국가전략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부지역의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행동으로 현지 경제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도록 많은 열혈청년들을 흡인했다. 이번이 수상한 1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봉사 일터에서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실천 능력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지 사회경제 발전에 정중의 힘을 기여했으며 실제 행동으로 당대 청년의 책임감을 보여줬다. 공청단연변주위 책임자는 이 10명의 대학생이 '전국 서부계획 평가 우수자원봉사자' 칭호를 수여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격려라고 하면서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이들을 본보기로 삼고 개인의 꿈과 국가 발전을 긴밀히 련결시켜 공동으로 이 시대 청춘의 장을 써나가기 바란다고 표했다. / 연변라디오 TV 넷



10월 20일,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의 풍년 든 논밭에서 수확기가 벼수확을 다그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연변의 량곡작물 파종 면적은 582.7만무에 달하는데 작황이 좋아 19억키로그램의 량식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경남특약기자